

제2회 아시아고분자심포지움 참가기

라디칼중합을 하는 일본과 중국의 과학자들은 1980년대초부터 2년마다 교대로 일본과 중국에서 일·중 또는 중·일 고분자심포지움을 1990년대초까지 개최하여 왔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심포지움의 명칭을 아시아고분자심포지움으로 바꾸어 일본이 처음으로 1993년 6월에 일본 미에대학에서 제1회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제1회 심포지움때는 일본과 중국의 발표자 이외에 본인이 guest로서 참석하여 논문을 발표하였다. 2년뒤인 금년에는 중국이 "Asia Symposium on Polymerization and Fine Polymers(ASYMP95)"의 구체적인 명칭으로 4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중국 개봉에 있는 하남대학과 동경호텔에서 제2회 아시아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개회식, 폐회식 및 초청강연은 하남대학교에서 하였고 일반발표는 동경호텔에서 하였다. 이 회의에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및 싱가포르의 과학자가 참가하였다.

제2회 심포지움에서는 한국 12편, 중국 61편, 일본 28편, 대만 1편 및 싱가포르 1편의 논문이 각각 발표되었다. 발표된 주된 내용은 일반 라디칼중합, 유화중합, 공중합, 이온중합 등과 액정고분자, 감광성고분자, bio관련고분자, 전도성고분자등이었다. 발표장의 시설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고, 준비도 훌륭하였다. 발표내용의 수준은 각국이 근접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회의의 분위기는 발표자 모두가 한문을 사용하는 문화권에서 참가하였으므로 거의 비슷하였다.

4월 22일에는 동경호텔에서 참석자를 위한 리셉션이 있었고 이 리셉션에서 김광웅 박사는 IUPAC MACRO SEOUL '96의 행사 준비와 서울을 slide로 소개하였다. 테이블에 각국 참가자의 자리를 섞어서 배치하여 각국의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게 하였고, 각국 대표자의 인사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만정교수가 인사를 하였다. 또 각국 참석자들이 자기나라 노래를 부르며 화기애애한 시간도 가졌다. 4월 25일과 26일에는 포스트심포지움으로서 황하, 소림사, 낙양용문석굴등을 구경하였다. 중국에서 관광하는 동안 들던대로 중국의 광대함을 보았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었다.

이 심포지움의 각국 대표자는 회의를 갖고 차기 심포지움을 1997년 5월 중순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아시아 각국의 고분자과학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각국의 고분자 과학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토의하는 광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차기 심포지움에 아시아 각국은 물론 국내의 많은 고분자 과학자들의 참여를 기대한다.

〈경북대 김우식〉

